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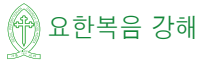
§ 2021년 표어 §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스 10:1, 12, 행 3:19-21)

十 행동 지침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교회!
- 3.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울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불신자들의 수군거림

(요 6:41-47)

이종윤 원로목사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의 진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도 의심하지 아니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진리를 의심해서 그를 미워하거나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교훈 이전에 그분의 인격, 예수 자체에 대하여 분노하고 미워한 것입니다.

1. 유대인들의 수군거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41절)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을 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일 근거를 잡았다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있거니와, 반면 사탄이 주는 열매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수군수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동의하지 아닐 때에 수군거립니다. 또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판단력이 서지 않는 사람들이 혼돈이 올 때에 수군거립니다. 또 노한 상태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분에 차서 수군거립니다. 수군거림이 많은 사회는 병들어 갑니다. 수군거리는 일은 작은 일도 침소봉대합니다.

2. 수군거림에 대한 예수님의 대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43-44절)

예수님 앞에 나타난 유대인들은 질투와 시기심이 꼭 차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예수님 자체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니다. 예수님은 수군거리는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 구원 문제를 언급하십시오

예수님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방어나 자기변호를 하시지 아니하고 곧바로 구원 문제를 언급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고 삶의 비결을 터득해야 합니다. 자기변명을 길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비굴해집니다. 우리는 욕을 먹을 때에 오히려 선을 열심히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수군거림에는 개의치 않고 오히려 구원 문제를 언급하십니다.

(2) 구원의 주장자에 대해 언급하십시오

44절의 '이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끌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올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항거를 물리치시고 끌어내셨다는 뜻입

니다. 여기에 대항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는 묻지 마십시오. 그저 감사만 하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감사는 구원의 감사입니다.

(3) 구원의 확증에 대한 언급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45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다'는 신학적으로 굉장한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는 'all' 일 뿐 아니라 'every' 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이사야 54장 13절을 보아야 합니다.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와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여기 '네 모든 자녀'는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합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교훈을 듣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3. 믿음 이전의 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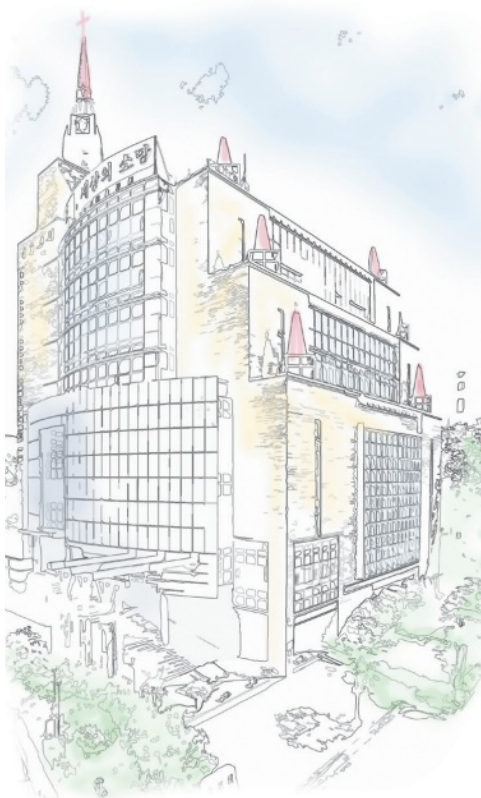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47절)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의 말씀은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영생을 얻은 자가 믿는다는 말씀인지 해석하기가 대단히 모호합니다. 그런데 47절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 '가졌나니' 라는 과거형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믿고 영생을 얻는 줄 아는데 47절을 보면 영생을 가진 자들이 믿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들은 다음에 믿음이 생긴다면, 이것은 우리 속사람에게 새 생명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요즘과 같은 과학시대에 어떻게 2천 년 전에 죽은 그가 우리의 구주이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보내 주셔서 내 안에서 역사 하시어 감동 감화를 주시고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주께로 올 사람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보다 큰 감사가 없습니다. 최고의 감사요, 최대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특별히 이끌어 주시어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믿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같이 믿고 영생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대검찰청 박노철 목사 측 재정비리 고발 건 재항고 기각

- 5년간 계속된 터무니없는 재정비리 의혹 제기 최종 종결 -

박노철 목사 측은 박노철 목사의 목회적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교회 분쟁의 초점을 오히려 다른 것으로 돌리기 위해 분쟁 발생 직후인 2016년부터 계속 오정수 장로를 비롯 이종윤 원로목사 등을 상대로 재정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러 건의 형사고발을 했다

오정수 장로와 이종윤 원로목사 등이 아가페타운을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하여 교회에 손해를 끼쳤거나, 그 차액을 뒷돈으로 받아 교회에 빌려주는 형식으로 엄청난 이자수익을 얻었다거나, 당회록을 위조하여 원로목사 사택에 임의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는 등 근거도 분명치 않은 거짓 사실로 형사고발하고 이러한 고발 사건이 모두 무혐의 처분 되었음에도 또다시 역대 사무국장, 재정 담당 직원까지 포함시켜 거액의 횡령을 저질렀다고 형사고발한 후 mbc PD 수첩과 jtbc 등 언론기관까지 동원하여 거짓 여론몰이를 하였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 마지막 사건도 ‘혐의 없음’ 처분을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박노철 목사 측은 이에 승복하지 않고 다시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여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어내려 온갖 노력을 다하였으나 서

울고검 역시 항고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시 대검찰청에 재항고까지 하였으나 지난 5월 12일(수) 이것마저 이유 없다며 기각한 것이다.

결국 이로써 그동안 5년 여에 걸쳐 계속된 서울교회 재정비리 의혹 제기 사건은 사법당국의 최종 결정으로 완전히 종결된 것이다.

한편 이번 재항고 초기 포함되어 있었던 고발인 26명 중 14명은 위 기각결정 이전 위 재항고가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며 취하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제라도 박노철 목사 측이 그동안 온갖 거짓 사실로 성도들을 미혹케 하였던 악한 행실과 이로 인하여 서울교회와 한국교계에 커다란 아픔을 준 것은 물론 기독교 복음전도의 길을 막았던 부끄러운 행태에 대하여 뼈를 깎는 심정으로 회개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오랜 기간 지속된 재정비리 건에 대하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만으로 계속 기도해 주신 여러 성도들께 감사드리고 이로 인해 누구보다도 마음고생이 많았을 오정수 장로를 비롯한 여러 피고발인들께 온 성도들의 위로를 함께 전한다.

대 검 찰 청 결 정		
사 건	2021 대불세항 제 429 호	
피 재 항 고 인	별첨첨조	
재 항 고 인	별첨첨조	
죄 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불 기 소 처 분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2018 형제 46837 호
	일자: 2020.09.14	주문: 혐의없음(중거불충분)
항 고 처 분	서울고등검찰청	2020 고불항 11285 호
	일자: 2021.02.18	주문: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재항고사건의 피의사실 및 항고기각 이유의 요지는 항고청 검사의 항고기각 결정서 기재와 같아 이를 인용하고, 재항고청 담당검사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 불기소결정 및 항고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5. 12.	
	검찰총장 대리	
	검 사	인

“
**박노철 목사 측이
 그동안 온갖 거짓 사실로
 성도들을 미혹케 하였던 악한 행실로
 서울교회와 한국교계에
 커다란 아픔을 준 것은 물론
 기독교 복음전도의 길을 막았던 행태에 대하여
 뼈를 깎는 심정으로 회개하는 계기가 되기를...**
 ”

교회 정상화를 위해 서울교회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행사해야 할 시간!

오늘 제3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제직회 개최한다

- 청빙 후보 손달익 목사 -

서울교회 성도들 모두가 후임목사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당회는 지난 5월 정기당회에서 손달익 목사를 제3대 담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정하고 헌법 정치 제28조 3항에 따라 오늘 찬양예배 후 제직회를 개최하여 최종 확정한다.

제직회에는 서울교회 정관 제7조 1항에 따라 부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및 전도사,

협동장로, 협력장로, 협동집사, 협동권사, 서리집사 등이 회원으로 참석하게 되고, 전체 재적 숫자에 관계없이 출석한 수로 개최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소속 서울강남노회의 청빙 허락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남은 청빙과정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손달익 목사

- 1955년 10월 13일 생
- 영남 신학대학교 신학과 졸업
-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목연) 졸업
- West Negros University 명예인문학박사

-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장 역임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서기 역임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평신도 지도위원장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기구개혁 위원장
- 세계개척교회연맹(WARC), 동북아시아 지역협의회(NEAAC) 회장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 역임
- 한남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이사 역임
- 현재 : - 서문교회 담임목사
 - 국민문화재단 이사 역임
 - 한반도 평화연구원, 한국기독교 언론포럼 이사
 - 문화선교연구원 이사
 - 장로회신학대학교 평신도교육대학원 원장
 - CBS기독교방송재단 이사장
 - 은평구민장학재단 이사장

다음 주, 제15대 안수집사, 제14대 권사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개최

"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며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행 1:24-25)

또한 당회는 지난 5월 정기당회에서 제15대 안수집사, 제14대 권사 후보 추천 명단을 확정하고 이번 주 공고를 거쳐 다음 23일(주) 찬양예배 후 그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오늘 그 후보 명단을 배포한다.

서울교회 운영규정 제5조 3항에 따라 안수집사는 임직일 기준 만 35세, 권사는 만 50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봉사 경력, 정규 공예배 출석상황, 심일조를 비롯한 헌금생활 등을 주요사항으로 고려하여 당회에서 그 후보와 순위를 정하되, 동 순위자는 교회 등록순서와 연장자 순으로 공동의회에 추천하게 된다.

공동의회에는 서울교회 정식 등록교인으로 공동의회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참석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한 주간 동안 배포된 명단을 잘 살펴보고 기도한 후 다음 주 공동의회에서 서울교회 안수집사 또는 권사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기표하면 된다.

한편 당회는 종전에는 피택인원을 미리 한정하여 선출하였으나 오랜 교회 분쟁 과정을 거친 이번 선거에서는 이를 한정하지 않고 성도들이 모든 후보를 대상으로 후보 개인들의 신앙 경력을 보고 서울교회 중직자로 합당하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기표하도록 한 후 총회 헌법과 교회규정에 따라 총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하는 후보는 모두 서울교회 안수집사 또는 권사로 피택하기로 하였다.

교회 회복을 위하여 할 일 많은 서울교회에 신실하신 주의 일꾼들이 최대한 많이 피택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계좌는 다음과 같다.

- * 신한은행 대치동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광 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 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란다.

2021 성경암송대회

2021 성경암송대회 일정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암송범위 : 요한계시록 1-5장
- 일반부 본선 : 10월 30일(토) 오후 2:00
- 교회학교 본선 : 10월 31일(주)

* 부별 대상 수상자는 31일 찬양예배 시에 암송할 예정이다.

“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와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민수기 27 : 15-17)

”



다시 세워지는 교회학교!

서울교회는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속하게 회복되어 가고 있다. 5년간 통합 운영 되던 교육부서도 각 부서별로 분리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미리 준비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부서의 교역자 이동과 새로운 교역자의 청빙으로 서울교회 교육위원회는 새로운 면모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 이에 각 부서 교역자를 소개한다.

축복받은 신앙 여정의 아름다운 출발점이 되는 영·유아부



강남의 전도사
영·유아부 담당

교회 교육 현장의 최전선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즘 IQ, 재능, 환경을 넘어서는 열정적인 끈기의 힘,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끝까지 해내는 힘, 어려움과 역경이 오더라도 그 목표를 향해 오랫동안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는 힘으로 그릿(GRIT)을 이야기합니다. 이 능력은 영·유아 시기부터 형성됩니다. 이를 위해 서울교회 영·유아부에서는 기본적인 신앙생활(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의 축적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신앙의 토대를 세우고, 다지는 일을 통해 이 힘을 연도록 돕겠습니다.

현재 영·유아부는 코로나19 비대면 상황에서 영상콘텐츠를 통하여 예배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유아부는 영상을 통해 만나는 예배 가운데 교육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기독교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면서도 예배의 기쁨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영·유아 어린이와 어머니들과 대면·비대면 접촉(대면 심방, 영상전화, 영상편지 등)을 통전적으로 내실있게 준비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 교육의 방향인 '올라인 (All-Line) 교회 교육'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 노력의 일환으로 교회 교육을 영상콘텐츠로만 접했던 영·유아부 어린이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환경이 낫설지 않도록 온·오프라인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예배 프로그램과 교회 교육 환경을 면밀히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세상에는 지구의 중심축이 전환되는 것에 비유

할 만한 상상을 뛰어넘는 전 지구적 질적, 양적 대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세계 문화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꿈나무로 자라날 수 있도록, 헌신적이고 훌륭한 교사 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풍요보다는 궁핍할 때, 기쁨보다는 아플 때, 우리는 삶의 진상에 마주 서게 된다고 합니다. 서울교회가 처했던 아픔의 자리에서 마주한 지혜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일에 서울교회 영·유아부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영아와 유아들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받은 신앙 여정의 아름다운 출발점이 되고, 초보 엄마와 예비 엄마까지 교육의 범위를 확장하여 서울교회 가족 공동체의 행복한 일원이 되는데 일조하는 섬김이가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과 가치를 심어주는 유치부



허은 전도사
유치부 담당

저는 학부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지금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며,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서울교회의 사역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서울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지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유의 주재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감사,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교역자분들께 감사, 그리고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존재만으로 축복 그 자체인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 하나님 나라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꿈과 가치를 그 마음에 심어주고 싶습니다. 바이블 스토리텔러로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유치부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의 멋진 나무들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더욱 하나 되어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나가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는 신앙교육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부모님

들이 신앙교육의 책임을 다하고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와 피드백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합쳐진 온라인의 참여와 소통을 이끌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미 예배를 비롯한 교회의 모임이 많은 부분 온라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사람과의 대면 그리고 접촉이 줄어든 상황 가운데 상호 소통하는 온라인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공동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오프라인으로의 초청'을 구축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믿음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알아가는 유년부



양하림 전도사
유년부 담당

귀하고 값진 사역의 기회를 주신 주님께, 그리고 서울교회 성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자 성경을 공부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

편 73편 28절 말씀은 목회의 소명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소명의 말씀대로 사역하기 위해 저부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알기를 힘쓰고 기도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주님께서 그 은혜 안에서 예정하신 일이며 그런즉 믿을 생활 또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이들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않게 하기 위해 기도하고 힘쓸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사회를 변화시켰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contact(접촉)에서 유래한 ontact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비대면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지만 온라인을 통해 뮤지컬, 영화, 콘서트 등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접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ontact 사역에 힘을 쏟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도 제약없이 복음과 건강한 기독교 문화를 접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초등부



이대원 전도사
초등부 담당

귀한 서울교회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만남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부

와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어떤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가득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한밤중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갑작스럽게 만난 풍랑으로 인해 겁에 질린 제자들처럼 갑자기 불어닥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 위기라고 말하지만 위기

를 기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지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가 위로와 희망, 격려를 전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고,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만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 이 말씀처럼 사람의 사랑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초등부가 되길 기도하며 성실히 이끌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동역할 수 있음이 저에게 큰 기쁨이며 행복입니다. 초등부를 섬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은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겠습니다. 한가지 작은 바램이 있다면 인생에서 느끼는 최고의 행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는 중등부



정기성 전도사
중등부 담당

저는 올해 초까지 군인교회에서 군인과 군인 가족을 섬기며 사역을 했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웠던 시기였기에 전역 시기를 늦추어 성도님들과 함께하며 말씀

과 교육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전역을 늦추면서까지 이들과 함께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역자의 부르심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기에 마땅히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군인교회를 섬기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공동체를 세우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만이 저의 입술에서 고백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서울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곳으로 부르셨음을 믿으며 사역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중등부 학생들과 함께하며 다음세대를 위한 사역자로 세우셨습니다. 코로나 이후 다음세대 사역은 창의성과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역 방향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말씀 위에 세워지고 말씀으로 회복하는 방향이 청소년에게 필요한 사역입니다.

그러하기에 앞으로의 사역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동체를 바라보며 나아갈 것입니다. 더불어 말씀 위에서 창의성과 다양성을 가지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사역을 꿈꿀 것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갈수록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힘써주시는 성도님들이 있어 이 사역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는 고등부



김예지 전도사
고등부 담당

서울교회에 사역자로 올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서울교회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교회의 홈페이지를 보았습니다. 서울교회 홈페이지에는 지난

시간 동안 교회의 여러 상황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뉴스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하고, 저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서울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뜨겁게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느껴졌

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고, 벅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를 향한 많은 학생들의 마음과 부서 교사들의 마음이 점점 흔들리고 있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멈추었습니다. 안타까운 이 현실 앞에 많은 교회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살펴보며 서울교회에 가장 적합한 예배의 형식과 프로그램들을 만들고자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를 사용하여 학생들과 소통하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고등부는 10대의 마지막으로서 입시를 치열하게 경험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신앙의 우선순위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 시간 속에 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힘껏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어진 모든 사역 속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며 배우는 자세로 겸손히 임하겠습니다.

서울교회로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청년부



안용근 전도사
청년부 담당

할렐루야! 2021년 서울교회 청년부는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의 표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며 경험하는 삶을 목표로 삼고 있

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

나님 앞에 서는 자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매일 매일의 '성경통독과 말씀묵상'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삶을 추구하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의 삶을 일치시키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를 구체적인 목회실천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6월부터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청년부 대면 예배를 재개하고, 온라인으로 팀모임을 진행하여 청년들의 교제와 나눔을 더욱 활성화하려 합니다. 또한 온라인 리더 양육과 성경공부를 통해 청년부를 섬기는 일꾼들이 지속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려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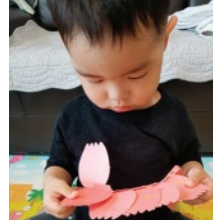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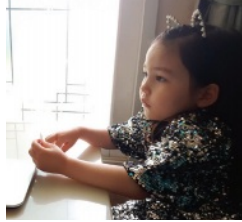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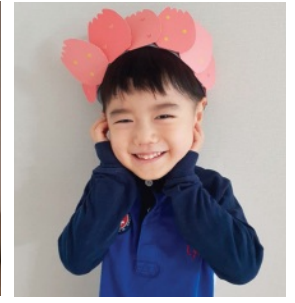


지난 주 찬양예배 시간에 가졌던 신임 부교역자 소개 및 교육위원회 담당 장석남 목사님과 함께



천국시민 양성 - 교회 현장예배

우리는 어린 예배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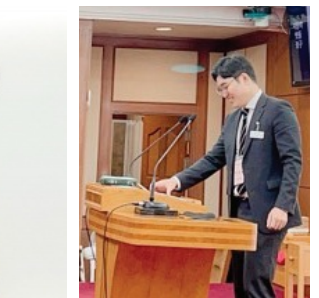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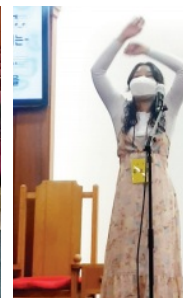
▲ 영·유아·유치부는 온라인 예배를 기본으로 하되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온 어린이들은 투명 칸막이가 설치된 유치부실에서 예배드렸어요.



4년 3개월 만에 유년부와 초등부는 각각 다른 장소에서 새로 오신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 기도로 유년부 예배를 준비하신 선생님들과 방역 수칙을 지키며 예배드리는 유년부 어린이들

▼ 실시간 온라인 예배와 교회 현장예배를 동시에 진행한 초등부.



제57회 한국기독교학술원 학술공개세미나

5월 24일(월) 오후 2시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한국기독교학술원(원장 : 이종윤 원로목사)은 제57회 한국기독교학술원 학술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

주제는 "COVID-19가 불러온 비정상·비대면 시대와 한국교회의 전망"이며 5월 24일(월) 오후 2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열린다.

'제1강 :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이상규 박사(고신대 명예교수), '제2강 : 사회와 교회의 관계'는 박홍규 박사(전 침신대 교수), '제3강 : 자연·환경과 교회의 관계'는 노영상 박사(총회 한국교회연구원 원장), '제4강 : 회복해야 할 신학·목회·교육·선교의 본질과 현실'은 이승구 박사(합신대 교수)와 김의창 박사(햇빛트리 다투신대원 교수)가 각각 발제한다.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 57회 (재)한국기독교학술원 학술공개세미나

주제 : COVID-19가 불러온 비정상·비대면 시대와 한국교회의 전망

· 일 시 : 2021년 5월 24일(월) 오후 2시
· 장 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p>제1강 국가와 교회의 관계</p>  <p>이상규 박사 (고신대 명예교수)</p>	<p>제2강 사회와 교회의 관계</p>  <p>박홍규 박사 (전 침신대 교수)</p>
<p>제3강 자연·환경과 교회의 관계</p>  <p>노영상 박사 (총회 한국교회연구원 원장)</p>	<p>제4강 회복해야 할 신학, 목회, 교육, 선교의 본질과 현실</p>  <p>이승구 박사 (합신대 교수)</p>  <p>김의창 박사 (햇빛트리 다투신대원 교수)</p>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2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란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2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20 도고팀장 김명심 권사
- 010-2002-6644

- 기도대상자들

황수지(생도) 한가형 김은호 유성혁 감동헌
소준 백승규 최윤학 이강현 유성호 심준규
허성강 장하람 옥준용
김정균 소령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동정



■ 전시 : 4교구 전경배 성도
(감연경 집사 남편, 김규태 집사 박미혜 권사 사위)
'잊어버린 것을 보다. 전경배사전전'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제3전시실 5.13(목)-5.21(금)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최고급 명품 된장 나눔 행사'와 된장 뜯 때 뺀 간장이 성도 여러분의 성원 가운데 하루만에 판매 완료되었습니다.

된장과 간장 판매 대금 전액은 한국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쓰여질 예정입니다.

서울교회 성도여러분 감사합니다.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5월17일	월	대하 31-33		마 14-18	
5월18일	화	대하 34-36		마 19-22	
5월19일	수	스 1-2		마 23-26	
5월20일	목	스 3-7		마 27-28, 막 1-2	
5월21일	금	스 8-10		막 3-6	
5월22일	토	느 1-4		막 7-10	
5월23일	주일	느 5-7		막 11-16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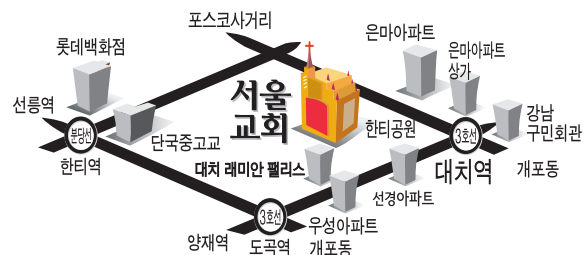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특별제직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회를 신실하게 감당할 담임목사가 청빙되게 하옵소서.
2. 5월 23일(주) 실시되는 항중직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충성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3.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이루어 주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민스터 홀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